

CR 2006-08

CEO Report

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

2006. 4

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에 대한
경영상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
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< 목 차 >

I. 머리말	1
II. 자동차보험시장 현황	2
III. 자동차보험시장 전망	10
IV. 손해를 안정화 방안	13

I. 머리말

□ 현재 자동차보험 시장은 '01.8월 가격자유화 조치이후 상품개발 및 가격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

- '03.8월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으로 보고상품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다양한 시장세분화 상품이 개발
- '01.10월 직판(On-Line)보험회사의 진출이후 신규진입 및 기존 보험회사들의 직판상품 개발로 직판시장도 경쟁격화

구분	직판 보험상품 판매회사
전업사(4)	교보('01), 교원('03), 다음('03), 현대하이카('06)
겸영사(7)	제일('02), 대한('02), 동부('04), 신동아('04), 메리츠('05), 그린('05), 쌍용('05)

주) ()는 직판보험상품 판매개시 회계년도

□ 또한 최근 자동차 보유대수 정체로 수입보험료는 소폭 증가한 반면, '05.8월 법규위반 사면에 따른 사고율 증가 및 폭설 등으로 손해율이 급등하여 보험회사의 영업수지가 크게 악화

□ 따라서 본 Report에서는 현재 자동차보험 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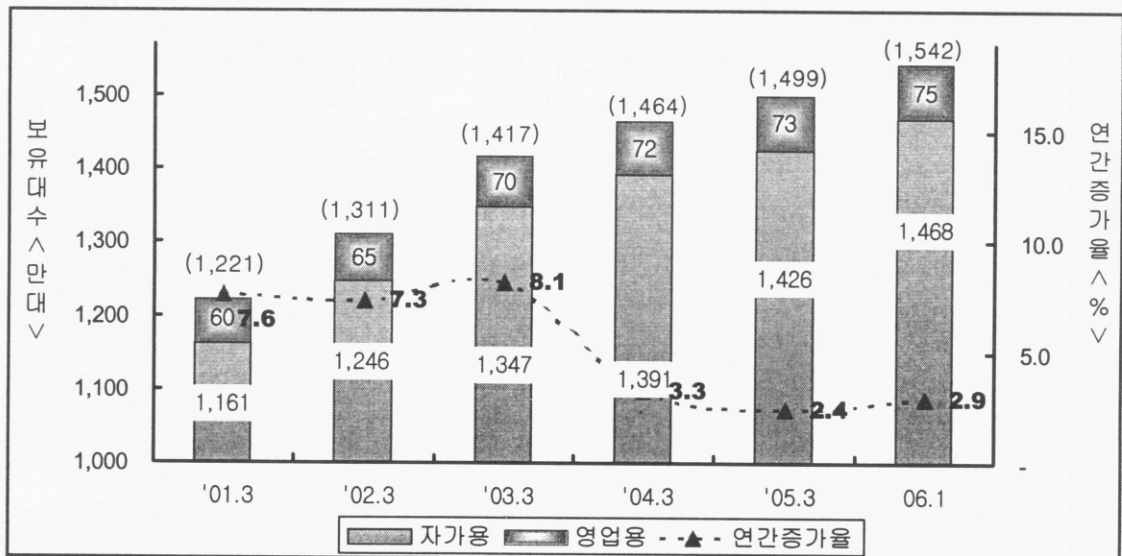
II. 자동차보험시장 동향

1. 자동차보유대수

- 자동차보유대수는 매년 7~8%씩 성장하였으나, FY'03이후 높은 청년실업률 및 고유가 등으로 증가율이 2~3%로 크게 둔화

[그림 1-1] 자동차보유대수 추이

(단위 : 만대)



주 : 이륜차 및 트레일러 제외 기준

- 현재 자동차 1대당 평균 인구수는 3.1명(승용차 4.6명), 1가구당 자동차대수는 1.0대(승용차 0.7대)로 분석됨

- 자동차 신규수요는 감소하나 대체수요는 점차 대형화 추세

- 대당보험료 규모가 큰 중·대형 승용차와 다인승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
[표 2-1] 차종 구성비

(단위 : 천대)

구분	FY'02		FY'03		FY'04	
	대수	구성비	대수	구성비	대수	구성비
소형	4,539	53.5%	4,470	48.3%	4,303	44.4%
중대형	2,322	27.4%	2,785	30.1%	3,128	32.3%
다인승	1,618	19.1%	1,997	21.6%	2,255	23.3%
합계	8,479	100.0%	9,252	100.0%	9,686	100.0%

주) 자가용 승용차 기준

- 대형 승용차를 선호하는 국민들의 성향을 볼때 중·대형 승용차의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됨

2. 수입보험료 및 계약상황

- 수입보험료는 과거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최근 자동차 보유대수 정체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낮게 시현
- 신차증가율의 둔화는 평균할인할증률의 감소추이를 동반하여 수입보험료 증가율 둔화의 주요원인으로 작용

[표 2-2] 수입보험료 및 평균할인할증률

(단위 : 억원, %)

구분	FY'01	FY'02	FY'03	FY'04	'05.4~1	연평균증감률
수입보험료	70,769	74,929	75,848	81,038	69,075	4.6
전년대비증감률	15.4	5.9	1.2	6.8	2.1	
평균할인할증률	69.4	68.3	66.8	66.2	65.8	

- 물적담보(대물 및 차량담보)의 비중은 선진국처럼 보험료 및 사고측면에서 모두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
- 이는 자동차의 지속적인 고급화(고가의 SUV차량 증가, 중·대형차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 증가) 및 '05.2월 대물배상 의무가입, '05.11월 정비수가 인상 등의 영향에 기인

[표 2-3] 물적담보 구성비 및 가입률

(단위 : 억원, %)

구 분	FY'01	FY'02	FY'03	FY'04	'05.4~1	연평균 증감률
물적담보구성비	34.3	37.5	40.3	42.1	43.0	7.1
대물가입률	85.2	85.7	85.8	91.5	92.0	2.4
차량담보가입률	49.6	51.6	51.6	51.1	52.0	1.0

주 : 가입률은 회계연도말 기준이며, 물적담보는 대물 및 차량담보를 말함

3. 손해율 및 사고상황

- 손해율은 FY'01, FY'02에 68~69% 수준이었으나 FY'03에는 태풍 「매미」 및 보험료인하 등으로 손해율이 악화되어 76.1%를 기록하였고,
- FY'04에는 사고발생률 감소 및 자연재해 미발생 등으로 손해율이 72.1%로 다소 진정되었으나, '05.4~'06.1에는 법규위반 사면, 모형단속카메라 철거, 사고발생률 증가 및 폭설 등의 영향으로 손해율이 76.4%까지 치솟음

[표 2-4] 손해율 및 사고율

(단위 : %)

구 분	FY'01	FY'02	FY'03	FY'04	'05.4~1
손해율	68.3	69.3	76.2	72.1	76.4
사고율1	4.6	4.8	5.3	5.2	5.7
사고율2	17.4	19.9	21.4	19.6	20.1

주) 1. 사고율1 : 대인 I 사고율
2. 사고율2 : 자동차보험 증권별 사고율

- 우리나라 손해율은 일부피해자의 보상심리와 일부병원의 과잉진료 등으로 필요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
- 또한,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피해를 과장하거나 가해자불명사고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의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액 누수 심각

[표 2-5]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현황

(단위 : 건, 백만)

구 분	2001	2002	2003	2004	2005
건수	5,749	5,757	9,315	16,513	23,607
손해액	40,440	41,132	60,605	129,039	180,198

주)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합산기준이며, 손해액 중 손해보험 구성비는 80.7%임

- 대인배상 건당손해액은 지속적인 차량증가로 평균주행속도 및 대형사고가 감소함으로써 감소추세에 있으며,
- 물적담보는 차량가액이 높은 다인승·중대형 승용차 증가 및 '05.11 정비요금 인상 영향으로 증가추세

[표 2-6] 건당손해액

(단위 : 천원)

구 분	FY'01	FY'02	FY'03	FY'04	'05.4~1
대인담보	4,758	4,186	4,027	3,961	3,734
물적담보	854	871	903	886	916

주 : 물적담보는 대물 및 차량담보

4. 사업비율 및 영업수지

☐ 사업비율은 최근 5년간 안정화 추세

- 보험사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사업비감소 노력과 FY'00 사업비 배분기준의 설정 및 명확화로 FY'00 32.2%에서 FY'01부터 최근에는 30.4~31.0%내에서 하향안정화 추세

[표 2-7] 자동차보험 사업비율 추이

(단위 : %)

구 분	FY'00	FY'01	FY'02	FY'03	FY'04	'05.4-12
사업비율	32.2	30.5	30.4	31.0	30.6	30.9

주 : 금융통계월보기준(금융감독원)

- 보험영업 효율제고 및 직판상품 판매증가 등으로 영업비가 감소하고 사고율 증가로 손사비가 증가하는 추세
- 사업비 구성을 살펴보면 FY'00~FY'04 기준으로 영업비 62.3%, 손사비 16.6%, 일반관리비 21.2%를 차지

[표 2-8] 3대구분별 사업비 구성비

(단위 : %)

구 분	FY'00	FY'01	FY'02	FY'03	FY'04	5개년평균
영업비	61.1	62.3	64.9	62.8	60.1	62.3
손사비	15.2	15.4	16.0	17.4	18.9	16.6
일반관리비	23.7	22.3	19.2	19.8	20.9	21.2
합 계	100.0	100.0	100.0	100.0	100.0	100.0

- 영업수지는 과거 만성적 대규모 적자에서 FY'01 이후 손해를 개선으로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었으나,
- FY'03 이후 자연재해(태풍 「매미」), 사고율증가 등으로 영업수지가 크게 악화

[표 2-9] 영업수지 추이

(단위 : 억원)

구 분	FY'00	FY'01	FY'02	FY'03	FY'04
영업수지	△4,717	△87	△149	△5,923	△3,708

주 : 금융감독원 「금융통계월보」 보험영업이익 기준

5. 회사규모별 합산비율 현황

- 중소형사는 대형사보다 합산비율이 약 5%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, 직판 전업사는 대형사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음
- '05년 손해를 급증을 감안할 때 중·소형사의 합산비율은 110%수준으로 매우 높은 실정

[표 2-10] 영업수지 추이

(단위 : %)

구 분	FY'02	FY'03	FY'04	'05.4~12
대형사	98.3	106.6	101.7	105.9
중소형사	102.5	111.7	106.1	110.3
직판전업사	97.4	100.9	98.4	103.6
계	99.4	107.8	102.8	107.0

주) 1. 직판전업사에는 회사설립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사의 실적은 제외
2. '05년은 '04년 사업비율 준용

6. 직판상품 판매현황

- ☐ 가입자들이 저렴한 상품을 찾는 경향과 온라인 자보사들의 꾸준한 보상망 확대에 따른 소비자 인식 개선으로 직판상품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확대

※ 직판상품은 모집경비 절감 상품으로 가격이 10~15% 저렴

[표 2-11] 직판상품 시장점유율

(단위 : %)

구분	FY'02	FY'03	FY'04	'05.4~12
시장점유율	2.9	5.8	8.3	12.0

주) 개인용(플러스포함) 보험료기준

- ☐ 인터넷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계층에서 직판상품의 선호도가 높으며, 직판상품 가입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
- 저연령자(일반 46세, 직판 42세)나 할인할증적용률이 높은 사람(일반 66.9%, 직판 68.0%)등 보험료 수준이 높은 사람이 주로 가입

7. 상품개발 현황

☐ 보험료절감형 상품개발

- 운전자 연령한정특약의 세분화
 - 30세/35세/38세/43세/48세 한정특약 등 추가 세분화
- 운전자 범위에 대한 한정특약의 다양화
 - 미가입/가족한정/부부한정/1인한정/가족+형제자매/지정1인한정/가족+1인/부부+1인 등 다양화
- 기타 자동변속기 차량할인, 도난방지장치 장착차량 할인, 승용차요일제참여차량 할인 등의 상품도 개발

☐ 통합형 상품개발

- 일반손해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을 결합하여 피보험차량 뿐 아니라 주택과 재산, 가족의 상해와 일상생활중의 다양한 위험을 한꺼번에 보장해 주는 통합형 상품개발
- 보험금 청구의 간편화, 전담설계사의 통합관리, 보험료 저렴 등으로 계약이 증가하는 추세임

☐ 고보장 상품개발

- 주5일 근무제 확대와 레저생활의 활성화 및 다양한 소비자 니즈에 부응한 고보장형 상품개발
- 주말 사고시 추가보장, 상급병실료, 간병비용, 법률비용 지원금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개발

III. 자동차보험시장 전망

1. 자동차보유대수

- 자동차보유대수는 높은 청년실업률, 고유가 및 1가구당 자동차 대수 포화수준 근접 등의 영향으로
 - FY'05 뿐만 아니라 FY'06에도 전년대비 3.3% 증가에 그쳐 증가세의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
 - 다만, 기존 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조자동차로 대체시 경·소형차에서 중·대형차 또는 다인승차로 대체하는 경향은 지속될 전망

[표 3-1] 자동차보유대수

(단위 : 만대)

구 분	자가용	영업용	계
FY'04	1,426	73	1,499
FY'05	1,473	75	1,548
FY'06	1,523	76	1,599

2. 수입보험료

- 수입보험료는 자동차보유대수의 증감폭에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, 최근 가격자유화에 따라 보험사의 정책적 측면(기본보험료 운용수준 결정, 고보장상품 판매주력, 상품포트폴리오 결정 등)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
- FY'05의 수입보험료는 자동차보유대수 증가세의 둔화, 가입경력

및 할인할증률의 지속적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3.0%에 불과한 83,473억원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

- ☐ FY'06의 수입보험료는 '05.11월 정비수가 인상에 따른 요율인상 및 '06.4월 보험료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9.4% 증가된 91,310억원으로 예상

[표 3-2] 수입보험료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수입보험료	전년대비증감률
FY'04	81,038	6.8%
FY'05	83,473	3.0%
FY'06	91,310	9.4%

3. 손해율

- ☐ FY'05 손해율은 잦은 폭설로 인한 사고율 증가에 더하여 '05.11월 정비수가 인상 및 '05.8월 법규위반 사면 등으로 인해 FY'04에 비해 다소 악화된 76.8%로 전망
- ☐ FY'06에는 '06.4월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'06.4월 약관 지급기준 확대 및 법규위반 사면에 따른 사고율 증가 등의 영향으로 75.0%로 예상

[표 3-3] 손해율

구 분	손해율	전년대비증감률
FY'04	72.1%	-4.1%p
FY'05	76.8%	4.7%p
FY'06	75.0%	-1.8%p

3. 합산비율

- FY'05 합산비율은 보험사의 사업비 절감관련 경영 개선효과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손해율 급등으로 인해
 - 100% 수준을 크게 초과하는 107.7%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, FY'06은 손해율 개선으로 인해 105.9%로 전망
 - 다만, 보험사간 M/S 확보경쟁으로 과도한 사업비지출 및 과도한 가격경쟁이 이루어질 경우 합산비율은 더욱 악화될 전망

[표 3-4] 합산비율

구 분	합산비율
FY'04	102.7%
FY'05	107.7%
FY'06	105.9%

주 : FY'05, FY'06 합산비율은 '05.4~12월 실적사업비율 30.9% 기준으로 계산

IV. 손해율안정화 방안

1. 교통사고 감소 노력

□ 교통사고 발생률은 지속적 방지노력으로 감소추세를 시현하여 왔으나, 선진국 수준의 교통문화 구현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

○ 교통법규사면 전·후 1년간 사고율을 살펴보면, 약 10% 정도 사고율 증가

- '98.3 사면후 10.6%, '02.7 사면후 9.7% 사고율이 증가함

○ 교통법규 사면제도의 경우 외국의 관련제도 조사 등을 통하여 시행의 합리성을 도모할 필요

※ 프랑스의 경우 음주운전, 과속, 정지신호무시, 위험한 추월 등은 일반적으로 사면대상에서 제외

○ 또한,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는 국민간 불신풍조 조장 및 직업적 전문신고인 양산에 대한 우려 등으로 2002년말 시행이 중지되었으나,

- 합리적 제도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재도입을 적극 추진

○ 이외에도 중앙분리대 설치 확대 등의 도로환경 개선, 정지선 지키기 운동 지속적 유지 및 교통법규위반 단속강화 등을 통하여 사고율 감소에 적극 노력할 필요

2. 보험사기

- 높은 실업률 및 사회적인 도덕불감증 만연 등으로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현상도 다수 발생함
 - 2005년 기준 적발건수는 23,607건(생보 6.9%, 손보 93.1%), 해당 손해액은 1,802억원으로서 자동차보험 손해액 과다 지급 원인으로도 작용
 - 최근 보험사기는 조직화, 지능화되어 보험사의 자체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한 수준인 바 보험사기 관련법 제정 및 제도개선이 시급함
 - 또한, 보험사·감독당국·수사기관간 상시 공조체계를 통한 보험사기 및 범죄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체계적·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범죄인식을 환기시킬 필요

3. 요율 및 제도 측면

- 차명모델별 요율차등화 및 할인할증 제도개선 등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조속히 도입함으로써 가입자간 보험료 형평성 제고
 - 차명모델별 요율차등화 및 할인할증제도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공청회 개최
 - 평균할인할증률 하락추이 적정화 및 손상성·수리성 제고와 부품가격 인하 유도 등을 통해 손해율 안정화 유도 필요

4. 중소기업 합산비율 개선노력 절실

- 중소기업의 경우 '05.4~12월 합산비율이 110% 수준으로 매우 심각하며, 이러한 상황에서 생존 및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합산비율 개선에 주력할 필요
 - 손해율의 경우 우량계약자 선별인수 및 적기 순보험요율 조정을 통해 개선되도록 노력
 - FY'04기준 사업비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회사보다 손사비는 1.5%p, 일반관리비는 1.8%p 높은 수준인 바 경비절감 등을 통한 비용 효율성 제고에 노력(끝)

CEO Report 2006-08

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

발 행 일	2006년	4월	일
발 행 인	김	창	수
편 집 인	권	홍	구
발 행 처	보	험	개 발 원
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-4		
	대표전화 368-4000		
인 쇄 소	(주) 유성사		
	대표전화 2285-0070		

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개발원
자동차보험본부 상품팀(☎368-4178)으로 하여 주십시오.